

삼국시대 고분 국가사적 지정

문화재청, 오늘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대상

문화재청(청장 김중진)은 남원시에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국가사적(제542호)로 28일자로 지정한다.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 성내마을 북쪽에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삼국시대 남원 운봉고원 지역에 존재했던 가야 세력의 지배자 무덤군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40여기의 대형 무덤들이 무리지어 있다. 이 무덤들 중에는 직경 20m가 넘는 초대형 무덤들도 상당



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사적 지정 예고된 고분군의 범위는 40필지 9만 8,225㎡로 무덤의 전체 분포권에 해당된다.

198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발굴조사를 한 결과, 6기의 봉토분에서 수혈식 석곽묘(구덩식 돌덧널무덤)와 횡혈식 석실분(굴식 돌방무덤)이 확인되었다. 이중 32호분은 직경 21m 크기의 타원형 봉토가 온전히 남아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삼국시대 무덤 축조기술을 알 수 있어 그 가치가 높은데,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계획된 축조과정(정지-봉분쌓기), ▲토제를 쌓고 구획석 설치 후 성토, ▲봉분을 견고하게 쌓기 위해 서

로 다른 토성의 흙을 관측기법으로 교대로 쌓는 기술력이 동원, ▲채토 및 배수를 위한 주구의 시설, ▲석곽 축조 시 목주(木柱) 이용 등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통형기대(일통모양 그릇받침)를 비롯한 각종 토기류, 환두대도·철모·철촉 등의 무기류, 살포·철검·철부 등의 농기구, 운주·혁금구 등의 마구류, 갑주류편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52호분에서는 백제 왕릉급에서만 부장되는 청동거울(자손수대경直子孫鏡帶鏡)과 백제계 금동신발편이 출토됐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고, 출토유

물도 재치세력·대가야·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되어 5~6세기 남원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백제와 가야 지역의 고대사와 고대 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주목된다.

남원시(시장 이환주)에서는 2018년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수목 제거 및 정비용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유적 보존과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남원시는 월산리 고분군 가야 유적 문화재 지정은 물론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연계한 조사와 더불어 옥계동 제철유적 및 아막성, 봉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의 대표 문화재인 광한투의 국보 지정, 남원농악 국가 지정 문화재 승격 등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발굴하여 지붕없는 박물관 남원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보존 전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호남지역 가야문화유산 최초 국가사적문화재 지정에 계기로 영남지역과 함께 세계유산 등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치유·행복 '만개'

디지털 독립영화관 이번주 상영작 '팬텀 스레드'·'해피 어게인'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등 3편



팬텀 스레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치명적 매혹과 치유와 행복 그리고 밤의 낭만이 만개하는 봄날 같은 영화 3편 '팬텀 스레드' '해피 어게인'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를 상영한다.

'팬텀 스레드'는 1950년 런던, 의상실 우드콕의 디자이너 레이놀즈와 그의 뮤즈이자 연인 알마가 벌이는 욕망과 집착 사이에 걸잡을 수 없는 러브 스토리를 담은 드라마다.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주연상만 3회 수상한 명배우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패션 디자이너 '레이놀즈' 역을 맡아 예민하고 날카로운 캐릭터를 실감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이 작품을 끝으로 더 이상 연기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많은 영화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국내에서 비로 3부작의 연인 셀린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줄리 델피가 주연을 맡은 '해피 어게인'은 각자 다른 상처를 지닌 네 사람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작품은 현대인이러면 누구나 한번쯤 겪어보았을 상처와 아픔에 직면하는 인물들을 그려내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극복해 가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줄리 델피는 이 영화를 통해 내면의 아픔을 진실되고 섬세하게 묘사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또 한편의 영화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는 밤거리를 헤매는 천진난만 검은 머리 아가씨를 짝사랑하는 어수룩한 선배가 짝사랑 그녀 앞에서 알짱거리기 작전을 펼치는 판타스



해피 어게인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틱 청춘 로맨스다.

작품은 일본 누적 판매 130만 부를 기록한 모리미 도미히코의 동명 판타지 소설을 원작으로 개성만점 캐릭터와 화려한 색감의 영상미가 만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개봉작은 29일부터 만나볼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정승희 명창이 들려주는 '춘향가'

31일 국립민속국악원 토요일국악초대석

국립민속국악원의 상설공연 2018토요일국악초대석 판소리마당에선 '정승희 춘향가'를 선보인다.

국악원의 정수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판소리마당에는 국가무형문화재 명창을 비롯해 차세대 명창들까지 판소리의 명맥을 잇는 소리꾼들이 무대에 선다.

오는 31일 공연은 정승희씨가 준비한 '춘향가'다. 정승희 씨는 인애란 명창에게서 처음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이래 여러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어린 명창으로 이름을 알렸다. 성우향·박양덕 명창을 사사, 이들로부터 각각 심청가·수궁가를 배웠다.

현재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29호 판소리동편제 춘향가 이수자이자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창극 춘향실록, Victor춘향, 심청 등 주연으로 열연을 펼친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 주목할 만 한 것은 정승희씨가 국립민속국악원 판소리마당 무대를 통해 3년 연속으로 판소리 춘향가를 선보이는 점이다. 연기에서 판소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춘향을 만나왔다는 그는 이를 통해 '춘향'에 대한 매력을 다지며 완성해 가고 있다.

이날 무대에선 춘향가의 절정 눈대목인 십장가를 연희할 예정이다. 공연은 선착순 예약제로, 620-2324~5 또는 카카오톡으로 예약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완판본문화관, 내일 경북대 남권희 교수 초청 특강

완판본문화관은 오는 29일 오후 7시 완판본문화관 세미나실에서 남권희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초청해 '한국 고서의 특색과 감정법'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우리나라 고문헌의 일반적인 특징과 시대별 흐름에 따른 책의 크기, 편법 방법, 표지 제작 방법 등을 토대로 한국 고문헌의 특징과 감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특히 남 교수가 서지학을 연구하며 체계적으로 수집해 온 다양한 실물 자료와 문헌 등이 함께 활용되어 보다 폭 넓은 내용을 더욱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 교수는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서지학회, 경북문화재전문위원, 대구문화재전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서지학회 이사과 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책전문위원, 대구지방시 교정청 기록물 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수강을 원하는 이



는 231-2212~3로 신청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임실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